

### 방산업체 대표 초청

# 국방부 장관 주재 리셉션 성황리에 개최

**방위**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산업체장 및 방산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기간중의 노고를 격려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주재 리셉션이 지난 12월 11일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는 국방부 및 방산관련부처 중요인사,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 장관 만찬사

존경하는 류찬우 회장님,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고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주적인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 오신 방산업체 대표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업체 대표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국내외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보호 장벽, 그리고 방산물자 수출의 부진 등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방산업체를 경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민수 제조업에 비해 가동률과 경상이익률이 현저히 낮아 경영상의 압박은 물론 방산 종사자의 사기저하 및 방산분야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20여년간 오직 자주국방의 신념과 열정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자주국방의 기반 구축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오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방부는 방산업체와 국가안보의 동반자로서 자주적인 방위역량의 구비가 지상과제임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현재 885억원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약 350억원을 중소방산업체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산업체 종사자의 사기대책으로 산업

환담을 나누는 金東鎭 국방장관, 柳纘佑 방진회장, 李廷麟 국방차관 (右로 부터)





훈·포상 및 정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부단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방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중흥은 물론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자주국방의 동반자인 방산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방산업체 대표를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 4반세기 동안 부단한 신념과 노력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변물량 감소와 함께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으로 자주국방의 기본적인 틀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위산업은 장래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침체된 방위산업을 21세기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에 입각,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업계는 정부의 '10% 경쟁력 높이기' 방침에 적극 동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면서 방산기술 선진화를 위한 투자확대와 기업의 경영혁신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오니 장관님께서도 방위산업이 중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방위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처럼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관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의 건승과 방위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회장 답사



존경하는 김동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방산관계 관과 업계대표여러분!

장관님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방산업계 대표를 위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업계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산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국방제도 개선 연구결과 발표

**지난** 12월 10일 국방부는 군의 무기 획득절차를 통폐합, 전력화 기간을 줄이고 무기획득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부서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 업무통제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복/불필요한 형식적인 무기획득절차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전력화기간을 단축'하고, 무기획득 전 과정에 공개원칙을 적용하므로써 국방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서간에 중첩된 기능조정과 업무통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내의 최고 우수인력을 선발, 장기보직하여 방위력개선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현 9단계에서 6단계로 단축하여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고, 만성적으로 사업 지연의 요인이 되었던 시험평가를 합참 전담책임제로 하는 등 군/합참/국방부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설정하였다. (P.11 도표 참조)

둘째,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개입찰제도 도입으로 합참은 시험평가 대상장비 결정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최종기종결정은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협의회』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개발은 정부시책에 부응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발할 무기체계를 장기소요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개발 인원/기간/예산의 실명화로 개발목

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현재 10개의 다양한 문서체계를 5개로 과감히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위협분석-대응전략-재원배분 순으로 상호 연계성을 유지토록 하였다.

다섯째, 조직은 유사기능 통·폐합과 명확한 책임한계 설정을 위해 군수국, 획개국, 정보체계국 간에 분산된 연구개발 및 획득유지기능들을 조정하여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재편성하고, 사업조정관 등 4개부서에 산재되어있던 평가 및 분석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적인 평가분석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장·차관 직속으로 전력분석평가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실장"제를 도입하여 가칭 「방위사업실장」을 신설, 산하에 방위력개선사업 관련부서인 전력계획관, 사업조정관, 연구개발관, 획득관리관을 두고 방위사업실장이 직접 관장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합참조직도 합동전장운영 개념 및 시험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할 예정이다.

여섯째,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쇄신을 통한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방위력개선 업무담당 인력의 3분의 1 수준인 140여명을 '97년부터 각군의 최우수 전문인력으로 우선적으로 교체, 보임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향후 우수 전문인력이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전담 특기 및 자격제도의 신설과 함께 전문직위를 설정하여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상위직위 진출이 가능하도록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국방전문인력 인

사관리규정을 '97년초까지 제정토록 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방위력개선과 관련된 국방체계관리 교육과정을 '97년말까지 국방대학원에 신설할 예정이다.

일곱째, 무기중개상 의존 탈피를 위한 무기 획득 정보체계구축을 위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군수무관제도를 보완하여 해외 무기정보 수집기능을 대폭 확대하며, '97년내 합동무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담당요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98년부터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무기획득업무 전산화 추진과 CALS 등 국방정보화사업도 조기에 추진토록 하였다.

여덟째, 무기중개상을 제도권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외국 업체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격 및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정기 및 수시

보안상태 진단을 통하여 부적격 업체는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 통제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홉째, 향후 공개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 관련문서의 비밀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재설정하고 특히 공개입찰로 업체에 공개될 문서들을 평문으로 전환토록 할 것을 밝혔다.

열번째, 국방부 산하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관료화된 현조직을 생산성있는 사업위주 조직으로 '97년부터 전면 개편하고, 국방정책 및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연구소로 발전되도록 국방부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선내용의 시행조치 계획은 '97년 2월까지 국방부, 합참 관련조직을 우선 개편 완료하고 개편된 조직에 의해 제도개선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기획득 단계 절차

(9단계 → 6단계)

현행	행	개선(안)	책임구분
	소요제기(각군/기관)	소요제기	각군
	↓	↓	
	소요결정(합참)	소요결정	합참
	↓	폐지	
	무기체계선정(합참)	↓	
	획득방법결정(국방부)	↓	국방부
	↓	시험평가	
	시험평가(합참)	↓	국방부
	협상(국방부)	협상	
	↓	폐지	
	구매방법결정(국방부)	↓	
	기종/도입방법결정(국방부)	도입방법	국방부
	↓	↓	
	무기체계채택(합참)	기종결정	

결론적으로 금번 특단의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는 현행 업무절차의 과감한 단축과 관련조직의 재편성 및 인력 쇄신을 통한 전문화로 업무수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제반업무의 공개원칙과 무기중개상 통제책 및 비밀 보

안규정 보완으로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향후 방위력개선사업은 더 이상 비리문제 등으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 '98~'02 국방 중기 계획 발표

**국방부** 는 지난해 12월 10일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백조8천여억원을 들여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복지개선을 도모할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중 28조 2천3백여억원(28%)을 방위력개선(전력정비)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운영유지분야에 72조 5천8백여억원(72%)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 대잠 탐지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도입된 P-3C 대잠초계기 8대외에 여러대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기

존의 구형 MR 1600 레이다 대신 최신형 해안 레이다 2백대를 구입,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기(AWACS), 한국형 구축함(KDX-2),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다연장로켓(MLRS), 차기 지대공미사일(SAM-X), 차세대 공격용헬기(AH-X)도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운영유지 분야중에서는 장병복지 및 처우개선, 실전적 훈련을 위한 훈련장 확보,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지원 확대, 장병 정신력 강화를 위한 시설 및 교재 지원확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와 잠수함 침투사건 등 남침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對북한 단독 억제전력을 확보하고 주변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에 따른 미래 안보위협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린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유지비는 점차 줄이고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고등기술 연구원, 「국방부 위촉 민간 연구기관」 지정

**고등** 기술연구원(사장 任孝彬)이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위촉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핵심 방산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고등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용인연구센터에서 이정린 국방부 차관, 배문한 국방과학연구소장, 안병길 방진회 상근부회장, 이봉희 대우중공업 사장, 심이택 대한항공 기술연구소장 등 1백여명의 정부, 민간연구기관 방산관련 연구소장들을 초청하여 ‘국방부 위촉 연구기관’ 지정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고등기술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핵심 방산기술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수한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활동을 펼쳐 왔으며, 95년 이미 비행체의 자세 제어용 자이로스코프를 개발한 바 있다.

핵심방산기술 개발에 민간연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방산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다. 현재의 기술개발 추세를 보면 민간연구기관이 96년 현재 전체 기술개발투자액의 85%를 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연구기관들이 고등기술연구원과 같이 핵심 방산기술 개발 기관에 참여한다면 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기술개발비의 10% 내외가 핵심 방산기술개발에 투자됨으로써 방산기술의 자립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방산기술을 민군 겸용기술로 전환하는데 유리하다. 이번 조치로 고등기술연구원이



개발하는 방산 기술은 1차적으로 방산 제품의 생산에 응용될 뿐만아니라 고등기술연구원의 조합원사인 대우 그룹의 여러 민수용 제품에 용이하게 응용될 수 있어 핵심 방산기술을 민수용 기술로 전환하는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셋째, 방산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방산제품의 수출은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방산제품에 사용된 핵심 방산기술의 소유권자인 선진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방산제품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세계 방산제품시장을 오랜 동안 선점해 온 결과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접근이 어려워졌고 제품 인지도가 낮았다.

민간연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산 제품은 민간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서 급속하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수출 확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등기술연구원은 방산연구기관 지정에 맞춰 '방산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방산 관련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방산기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기술개발 예산의 20%인

5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항공기, 유도 무기 등에 사용될 첨단 자이로스코프 및 원격 탐지용 레이저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항공우주분야(자이로스코프, 자동항법장치, 위성통신 등),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분야(FED, 액정배향막), 자동화(자동화 로봇, 콘트롤러, 소음진동 제어 등), 플라즈마 응용분야(표면처리, 박막코팅, 정화장치 등), 레이저(원격 탐지용 레이저, 레이저 가공 시스템, 레이저 이용 측정 시스템 등)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기술개발에는 고등기술연구원의 8백여 명에 달하는 석, 박사급 연구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 國科研, 신형 81mm 박격포 개발 실전배치

**국방** 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한 신형 81mm 박격포, 탄약, 전자식 사격제원 계산기가 지난해 말부터 실전에 배치된다.

순수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이 박격포는 최적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전체중량을 구형 81mm 박격포보다 약간 감소시키면서도 최대사거리가 4.6km에서 6.3km로 약 1.4배로 증대되어 공격 및 방어진 최초 진지에서 보조 진지 점령없이 지속적인 화력집중이 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포신온도 해석을 통해 지속 발사속도를 25% 향상시킴으로써 짧은 시간동안에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탄의 살상위력은 구형탄에 비해 약 1.36배로 증대되는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군의 전력이크게 증강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식 사격제원 계산기는 음성통신으



로 사격제원을 전달하는 기존의 통신방식을 대폭 개선한 장비로, 관측소와 진지간 음성통신 없이 데이터 통신으로 사격제원을 전달하고, 4문에 대한 사격제원을 동시에 전자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투시 전장소음에 의한 음성통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제원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각 구성품별 제조업체는 기아중공업(주)가 박격포 체계, (주)풍산 및 (주)한화가 고풍탄약, (주)삼양화학이 백린연막탄, 대영전자공업(주)가 사격제원 계산기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비는 모든 기술과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제약 사항이 없고, 선진국 장비들과 비교하여 성능과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 대우중공업 화생방 정찰장갑차 양산 1호기 출고

**대우** 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약 10년간의 각고끝에 화생방 정찰장갑차를 개발하여 양산, 출하하게 되었다.

화생방 정찰장갑차는 한국형 전투장갑차에 첨단 화생방 장비를 탑재하여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에서 전장지역을 주, 야간 정찰하고 화생방작용제를 자동적으로 신속정확하게 탐지, 분석 및 전파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궤도형 화생방 정찰장갑차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 양산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생산 초기부터 국방품질연구원의 엄격한 품질보증 활동에 의해 완벽한 장비를 생산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화생무기는 살상효과가 방대하고 보유육구가 강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생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은 물론 대응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세계가 화생방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는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우중공업은 현대전에서 화생방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화생방 정찰장갑차를 개발하게 되었다.

화생방 정찰장갑차는 기동성 및 생존성이 우수한 장갑차로서 지표면 또는 대기중에 오염되어 있는 화학작용제를 자동으로 탐지 및



분석하는 장비인 화학작용제 자동분석기와 외부의 오염된 공기 및 독성물질을 여과시켜 정화된 공기를 차량내부로 공급시켜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상상태를 측정하는 기상 측정장비 및 방사능 측정기 등 최신의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어떤 지형에서도 정찰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화생방정찰 임무수행시 탐지 측정된 정보를 인접부대 및 상급부대까지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자동 전송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군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개발된 화생방 정찰 장갑차는 국내 개발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여 수출이 기대되는 장비로서 현재 해외 각지에서 수출상담이 쇄도하고 있다.